

언어 문화 교육과 민주적 시민성 교육과의 관계

지금까지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지, 어떤 방식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이 책으로 배울 때 요구되는 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설명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어 교육책과 달라서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이미지가 다른데?', '왜 이런 '대화' 수업을 일본어 교육에서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 책을 만든 저희들의 생각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이념'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이 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념은 '민주적 시민성' 입니다. 우리 저자들은 '민주적 시민성' 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주적 시민성' 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 교육과 일본어 교육과 같은 언어 교육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각기 다른 정체성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사람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조금밖에 할 수 없는 언어가 있고, 회화는 할 수 있어도 글자는 읽지 못하는 언어, 글자는 읽으나 듣기는 잘 못하는 언어가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의 언어 능력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언어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떠들떠들 단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언어보다 언어로서 본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소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보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 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10 명의 언어 능력은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시험 점수가 좋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념과 사용법을 연결하는 6 가지 포인트' 의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학생도 교사도 '일본어 화자' 로만 보면 '대등' 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어 선생님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보다 대단할까요? 적어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대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외국어(예를 들어 학습자의 모국어) 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외국 출신의 학생도 그와 같이 선생님보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도 학생도 교실이라는 사회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의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속에서 대등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문화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약한 연결고리' 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즉, 교실도 하나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 즉 '시민' 입니다. 하나의 사회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배운다는 목적으로 '약한 연결고리' 로 이어져 있으면서 한 번의 수업에 1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 교육의 수업입니다.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특징은 교실 밖의 사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다른 이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자세와 방법 (맞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시민성' 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을 배우기 위해 언어 교육은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일본어 교육과 같은 언어 교육의 '장' 을 '민주적 시민성 교육' 의 '장' 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모든 것들은 '민주적 시민성' 을 습득하고 키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책을 사

용해서 학습할 때는 ‘민주적 시민성’ 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 의 ‘장’ 을 통해 ‘비판적인 자세로’ , ‘자신 혹은 다른 이와 마주 보고’ , ‘다른 이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 ‘여러 가지를 깨닫고’ , ‘다른 이와 조정하는’ 것을 의식하며 학습해 주세요. 즐기면서 ‘대화’ 와 ‘서로 다른 문화 이해’ 의 ‘장’ 을 쌓아 올려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민주적 시민성’ 이 습득되고 키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1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주적 시민성을 배우기 위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화’ 를 통해 즐겁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가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주세요.

2023 년 11 월 나지마 요시나오, 노로 가요코, 미와 세이